



北韓의 食生活

공산체제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식생활은 어떠한가.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를 공산권문제 연구소의 관계
자를 통해 알아 본다.

調 査 部

배급제도하의 식생활

북한의 식생활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공산주의식(共産主義式)이다. 즉, 전체주의 사회체제이므로 개인의 생활보다는 단체생활(團體生活)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식생활도 가정 본위(家庭本位)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소위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計劃經濟)이므로 일체의 생산이나 분배가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되어 개인생활(個人生活) 특히, 식생활에 있어서 획일성(劃一性)을 면할 수가 없다.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되는 주식(主食)을 도시의 노동자·사무원들에게는 배급제(配給制)로 하며 농촌에서는 리(里) 단위 협동농장으로 분배(分配)를 실시하고 있다.

해방 직후부터 노동자·사무원들에게 부분적으로 배급제를 실시하다가, 전쟁이 끝난 1954년부터는 심각한 식량부족(食糧不足)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배급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농촌의 경우는 개인농(個人農)이 존속하던 1958년까지는 협동농장원(協同農場

員) 이외의 개인농민(個人農民)은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유로이 처분(處分)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8년 이후는 개인농이 완전히 폐지되어 분배에 의하지 않는 농민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식량배급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이는 독재체제(獨裁體制)를 위한 상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레닌은 말하길,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그나라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밥주머니를 틀어 쥐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즉, 식량의 소비를 공산당이 장악(掌握)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식량배급제(食糧配給制)를 통하여 국민의 동태(動態)를 파악(把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전·여행 등을 억제(抑制)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식량부족은 불가피하게 배급제(配給制)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고 경제의 계획화(計劃化)에 따른 노동력안배(勞動力按配)와 그의 고착(固着)을 위해서는 배급제가 불가피한 것이다.

북한에서의 곡물(穀物)사정은 곤란한 형편이다. 원래 논(畝) 면적이 적고 밭이 많지만, 휴전 후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중공업 편중정책

(重工業政策)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은 매우 부진하게 되었다.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업집단화는 농민들의 생산의욕(生産意慾)을 극도로 감퇴시켰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농촌노동력의 부족은 식량을 비롯한 농업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북한에서는 벼를 비롯한 식량작물을 가리켜 알곡이란 용어로 통용(通用)하고 있다. 알곡이라 함은 조곡(粗穀)을 뜻하며, 즉 논벼·옥수수·수수 등의 입곡(粒穀)과 잡곡, 그리고 콩·팥등의 두류(豆類)가 포함되어 있다. 감자와 고구마는 원래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북괴는 그들의 협동농장과 같은 농업경영방식이 자본주의적 농업경영방식보다 우월(優越)한 것처럼 농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생산량을 늘리어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알곡 생산량에 감자 생산량을 포함시키게 된다. 때문에 북괴가 발표하는 알곡생산량(粗穀生産量)을 볼 때에는 감자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북괴의 알곡생산량 발표는 총량(總量) 뿐이고 곡물별(穀物別) 생산실적은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북괴가 발표한 연도별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71~76기간에 700만톤을 계획하였는데 75년에 그들은 770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76년은 800만톤 증산을 내세워

북한 의 중 요 물 가 (1975년 현재)

類 別	品 名	單 位	價 格
肉類 및 魚類	牛 肉	kg	7원 50전
	豚 肉	"	"
	등 태	"	30~60"
菓子 및 果實類	비스켓	"	4원
	사 과	"	1원
調 味 料	간 장	"	18전
	설탕	kg	2원
	참기름	l	9원

실행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고는 460~500만톤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알 곡 생 산 실 적

단위 : 1천톤

연도별	수 확 량	연 도 별	수 확 량
1946	1,898	1958	3,700
47	2,067	59	3,400
48	2,668	1960	3,803
49	2,654	61	4,830
51	2,260	62	5,000
52	2,450	63	전년수준
53	2,327	64	"
54	2,230	65	4,526
55	2,340	66	미발표
56	2,873	67	"
57	3,210	1970	6,000()

이와같이 하여 식량배급제를 유지하여 왔는데 1964년까지는 북한의 노동자·사무원들 중간부급에 대하여는 일반 노동자나 사무원들보다도 양(量)으로나 질(質)적으로 특별 대우를 하여 불공평한 배급제가 실시되었다. 1965 그러다가 1965년부터 식량배급에 한하여 계급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실시하고 있다.

일일 배급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6년 현재)

- 노동자·사무원.....600g
- 부양가족.....300g
- 국민학교생.....400g
- 중학생.....500g
- 기술학교생.....600g
- 대학생.....600g

쌀과 잡곡의 비율은 5대 5가 원칙이다. 때에 따라서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백미와 잡곡의 비율이 7대 3으로 백미가 많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급은 무상(無償)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現金)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배급 가격은 운반의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씩 배급소에 가서 배급 카트에 기록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잡곡 대신 감자로 출배는 감자와 잡곡(옥수수)등의 비율은 4대 1로 환산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쟁비축미 등으로 배급량이 줄고 그나마 잡곡 비율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노동직장 등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배급 이외의 주식(主食)을 구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며 한때 암거래가 있었으나 이는 매우 고가(高價)인데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엄벌(嚴罰)에 처하기 때문에 암거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형편이니 매일 밥을 지을 때 그 분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몇 끼니씩 부족할 때도 있다. 또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서는 쌀 배급을 타는 것을 옥수수와 바꾸어 가는 사람도 있다.

옥수수는 1960년까지는 통강병이를 배급하여 식생활에 매우 불편을 느꼈으나 그후 부터는 각 도단위(道單位)로 옥분공장(玉粉工場)을 설치하여 통강병이를 빵아서 배급함으로써 밥짓는데 한결 편리하다.

매식(買食)이란 거의 없으나 폭시 식당에서 국수라도 사먹으면 식량을 양권(糧券)으로 바꾸어 양권을 식당에 제시하여야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란 여행하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일반주민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식생활이 이러한 형편이므로 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또는 무엇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自由)도 일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 같은 음식을 되풀이 하여 밥상에 올릴 수 밖에 없고 식생활을 대신하여 장만할만한 음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더욱 편식

(偏食)을 면할 수가 없다.

부식물의 경우는 주로 식료품 상점에서 구입하여 먹는다. 간장·된장 등도 집에서 담글 수가 없으며 상점에서 파는 것을 사먹어야 된다. 그 밖에 곡물을 만드는 부식물은 두부 정도가 있으며 콩나물·숙주나물 등은 없다. 식용유(食用油)에서는 참기름이 품귀(品貴)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매우 비싸서 사먹기 힘들다. 그밖의 기름은 일인당 매일 20g씩 계산하여 사먹을 수 있는데 이는 낙화생 또는 콩기름이다.

육류(肉類)는 휴전 후부터 계속 사먹기 힘든 형편이며 최근에는 식료품 상점에 부설된 고깃간에 나와 있으나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좀처럼 사먹기가 힘들다. 돼지고기 1kg당 특괴화폐로 7~8월, 소고기 9~10원씩 하며 근래에 와서는 닭을 많이 기르게 하여 닭고기와 계란은 언제나 구입할 수 있다 한다.

가을철 김장에 있어서는 세대당(世帶當) 무우·배추의 할당량(割當量)에 의하여 김치를 담그는데 생강을 비롯한 조미료(調味料)가 부족하여 맛있는 김장을 담그기가 어렵다.

김 같은 해태류(海苔類)는 수출품으로 지복되어 있어 일반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주식에 대한 철저한 배급으로 한정된 식생활을 하게 되며 부식물은 그 종류가 다양(多樣)하지 못하여 기호(嗜好)에 맞는 식생활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맛 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다.

오늘날 모든 면에서 남북한의 차가 심히 벌어지고 있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장기간에 걸친 식생활의 차이로 인하여 체질적으로나 성격상으로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성장 발육이 북한 주민들 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이다.

가족식당과 식탁메뉴

가족식당(家族食堂)이란, 평양을 비롯한 도시집에 있는 식당으로 주로 아파트가 있는 거리에 설치되었다. 자유세계에서는 가족식당과 같은 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나 공산치하에서는 식량배급제(食糧配給制)에 따른 식량절약(食糧節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식당인 것이다.

가족식당이란 글자 그대로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식사를 하는 식당을 말하는데 독신자(獨身者)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식량배급권(食糧配給券)을 식당에다 제출하고 아침 점심 저녁별 부식비(副食費)와 기타 수수료를 주어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기숙사와 같은데 다만 잠은 집에서 자고 식사는 가족식당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식당에서는 가족(家族)마다의 기호(嗜好)에 맞는 음식을 일정하게 찍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아침에는 가족전부가 일제히 기상(起床)하여 식당을 동시에 이용하게 되며 개별적(個別的)으로 가면 음식을 사먹을 수도 없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침과 점심 도시락만 가족 식당에서 하고 저녁식사는 집에서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가족식당을 만든 근본목적(根本目的)은 가족단위(家族單位)의 가정생활(家庭生活)을 완전히 떠나서 집단주의생활(集團主義生活)을 일층 강조(強調)하는 공산체제의 본질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식생활(食生活)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다 절약하여 노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식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족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의 분위기를 말

살 시킴으로써 인간을 한낱 유물주의(唯物主義)사상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점도 분명하다.

가족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나면 아이들은 탁아소나 유치원 또는 인민학교로 부부(夫婦)는 직장으로 각각 흩어지게 되어 전통적인 한국적 가정생활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식당은 보다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끔 사회체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날이 확장될 전망이 매우 크다.

흔히 이용되는 밥공장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에는 <밥공장>이라는 것이 있다. 공장이라는 용어가 붙었기 때문에 일반공장(一般工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밥을 지어서 팔고 공급하는 곳이다. 북괴는 아직까지 집에 남아 있는 부녀자(婦女子)들을 노동현장(勞動現場)에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밥공장을 만들어 팔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1964년 경부터 그계획을 세우며 서둘러 왔었다.

밥공장을 이용(利用)하려면 우선 이 공장에서 밥을 가져다 먹겠다고 사전(事前)에 신청하여야 하며 자기 가족의 식생활 배급량 배급표를 미리 공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공장에 와서 밥을 가져다가 집에서 그릇에 갈라 담으면 그 사이에 다 식어서 찬밥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우기 겨울에 그렇게 할 경우, 먹을 수 있겠는가를 상상해 보면 기가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집에서 그 밥을 데워 먹는다고 가정할 때 밥공장에서 가져다가 집에서 또 끓여 먹을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것이 도리어 편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